

세미나 중계

WTO체제 하에서 EU의 돈육부문과 그 전망(하)

Mr. Knud Buhl

(덴마크돈육기구연합 국제업무부장)

◇…본고는 지난 2월 17일부터 18일까지 축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열린 「WTO 체제 하의 양돈산업과 발전방향 국제 세미나」중 발표된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편집자 주〉…………… ◇

〈지번호 88쪽에 이어서〉

12. 시장구조에 대한 GATT의 변화

충분히 이행되었을 때, GATT협약은 유럽무역시장의 계속성을 크게 제한하는 효과를 얻을 것이다. 수입장벽과 수출보조는 더이상 유럽과 세계의 사료가격 사이의 차이에 의한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다. 돈육시장의 관리 능력에 따르지 않고 시장규제에 의한 일반적인 GATT 규정에 따라 그것들이 이루어진다. 그런 규정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 무역관세 장벽이 없는 관세화
- 최소한의 시장접근
- 수출지원금에 대한 재정축소
- 수출지원금의 양적 축소
- 끝으로, 내부적 지원금액축소이다

유럽돈육부문의 시장관리에 있어서 이것은 수입규제가 1986-1988년 수준으로 동결될 것이고 그에 따라 앞으로 6년동안 36%까지 줄어든 것을 의미한다. 또한 수문가격에 대한 수입규제는 없어질 것이다.

나아가 75,500톤의 할당분에 한해서는 특별히 낮은 관세가 적용될 것이다.

수출 측면에서 상환예산은 1986-1990년의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고, 차후 6년의 이행기간에 36%까지 감소할 것이다. 이것도 183-117 MECU의 예산규모 삭감에 준하는 것이다.

같은 기간동안 수출상환금으로부터 파생되는 수출물량은 1986-1990년의 수출과 비교해서 21%까지 감소하여야 한다. 즉 상환금과 함께 수출이 하락되었던 유럽연합의 물량은 이행 마지막해에 49만톤에서 40만2천톤까지 떨어질 것이다.

결국 최소한도액이라는 GATT의 합의를 넘어서는 내부지원은 20%까지 삭감되어야 한다.

13. 결과의 평가

우리는 유럽돈육부문이 새로운 GATT체제와 조화를 이룰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것에 대한 주요한 반응의 하나는 1992년 유럽각료회의에서 결정된 일반농업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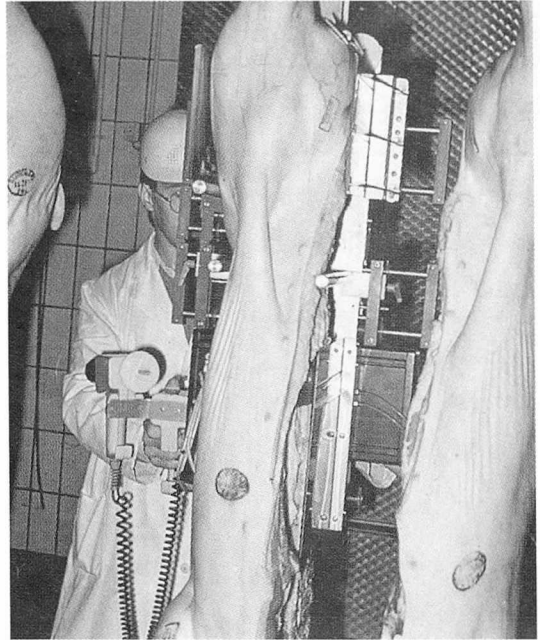
의 개정에 대한 이행이다. 비록 개정작업에서 돈육문제가 매듭지어진 것은 아니지만 유럽의 곡물가격을 낮춰서 돈육분야에서의 사료비용에 큰 영향을 줄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세계곡물시세의 변동같은 주요 변동만 없다면 곡물가격은 GATT의 인허에 맞춰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수입규제 수준의 완화와 GATT에서의 수출재원은 유럽과 세계시장간의 생산비 차이 내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일반농업정책 개혁은 유럽의 곡물가격을 세계시장수준까지 내리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GATT가 합의한 수출상환금으로부터 야기되는 수출물량의 21% 삭감을 유럽의 사료가격을 세계수준보다 높게 유지시킬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문제의 규모는 상환금과 함께 늘어난 수출물량이 GATT의 기준시기동안 509,000톤에서 1994년 700,000톤으로 늘어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비록 1994년이 특별한 해였고 평균 수출량이 5~600,000톤이라 하더라도 GATT의 제한은 GATT체제 변화의 종반까지 상환금과 함께 최소한 400,000톤이 수출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유럽이외의 지역에 대한 기존의 수출물량을 유지하기 위해 유럽의 양돈가들은 경쟁상대들보다는 효율성을 높여서 그들의 단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요구는 가축과 환경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 것이고, 그에 따라 유럽의 양돈가들 중 많은 지역이 돈육생산을 포기하게 될 지도 모른다. 만약 다른 나라들이 동일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 이런 제약들은 유럽의 돈육 생산자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 분명하다.

유럽시장에서 낮은 관세가 합의된 부분이 75,500톤으로 한정되는 한 그런 적용은 내부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것은 유럽이 이미 최근의 GATT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물량만큼의 제 3세계를 위한 특별한 시장을 준비해 왔기 때문이다.

내부지원을 줄이기 위한 의무와 관련하여 돈육부문의 재정지원이 GATT의 "최소한도액" 이하라야 한다는 것이 고민거리가 될 것이다. 돈육분야에서 민간 수준에서의 저장을 위한 지원의 지속적인 이용가능성은



GATT규정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유럽내 다른 주요한 농산물분야와 GATT의 영향을 비교해 볼때 돈육분야에서는 큰 변화들이 없을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장기적으로 GATT는 유럽내 생산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유럽에서의 돈육생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럽내에서 소비의 지속적인 증가는 장기적으로 생산의 증가를 촉진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것은 적어도 곡물가격의 지속적 하락이 돈육가격을 낮춰 구매력이 높아지는 상황이 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유럽의 소비자들 사이엔 살코기가 건강에 좋다는 자각이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유럽의 돈육 생산은 현재 연간 1,500만톤에서 내년에는 적어도 1,600만톤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런 경향은 2~3년내에 일반농업정책에 대한 제 2의 개혁이 이루어질 경우 더욱 뚜렷해 질 것이다. 일반농업정책에서의 새로운 개혁은 유럽의 곡물가격과 세계곡물가격의 완전한 조화를 포함할 것이다. 돈육의 생산과 소비의 증가회에 사료비용의 추가적인 조정은 GATT협약 때문에 돈육수출업자들이 직면한 난관을 제거하게 해 줄 것이다.

14. 경쟁과 새로운 시장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을 위해 개방이 증가될 때의 결과를 예측하려면 우리의 경쟁자들에게서 일어나는 주요한 구조적 변화를 고려해야만 한다. 특히 미국 돈육 산업이 통합되어 가고 효율성과 수출지향적으로 가고 있다. 최근 새롭게 통합된 상업적 농장에 대한 상업적 투자는 생산증가를 촉진시켰고, 돈육가격이 지난 22년간 가장 낮아지는 결과를 낳았다. 이런 변화는 미국돈육분야에서 시작하여 구조적으로 비슷한 칠면조, 닭고기 산업으로 옮겨갈 것이다. 이런 변화의 가장 확실한 결과는 미국이 자국시장을 스스로 충족시킴으로 유럽에서 미국으로의 수출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더우기 미국 수출력의 증가가 예상되고 그 결과로 EU의 전통적인 수출시장에서 점차적으로 경쟁이 증가할 것이다.

이런 상황으로 EU의 수출국들은 새로운 시장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전통적인 돈육생산과 수출지역은 1995년 1월 1일부터 EU가 확대됨으로써 새로운 시장에 대한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 핀란드, 스웨덴과 오스트리아의 EU 가입은 유럽의 내부시장을 확대시켰다.

이 3국들의 돈육가격수준은 각 나라들의 농업정책에 의해서 EU의 가격수준보다 50-60% 가량 높았다. EU에 가입함으로써 그러한 정책적인 조정이 불필요하게 되었다. 이것은 이 새로운 회원국에서 1월 1일부터 돈육의 가격이 EU의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EU의 새로운 회원국에서 돈육의 소비는 보다 더 싼 가격때문에 연간 700,000톤에서 800,000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보다 낙관적인 관점들은 EU의 돈육의 시장확대로 인해 200,000톤정도가 더 소비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럽이외에 시장 접근 규정에 동의하는 GATT는 새로운 시장의 접근에 있어서 EU의 수출국들을 지지할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극동지역은 고품질의 유럽산 돈육의 수출을 위한 새로운 시장이 될 것이다. 가장 유망한 시장중에 하나가 한국이다. 그러나 시장이 개방되었을



때, 한국의 양돈업자들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한국은 지금까지 한국농업에 경쟁적이지 않고 보조적인 수준에서 주요 EU의 수출국인 덴마크로부터 수입을 하는 형식으로 돈육을 수입해 왔다. 우리는 이런 발전이 지속될 수 있기를 바란다.

중장기적으로 또다른 유망국은 필리핀, 태국과 일부 중국의 경제적으로 강력한 지역들이다.

만약에 중남미의 여러나라들이 GATT와 SPS협정에 따라서 시장을 개방한다면, 유럽이 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 지역에서 가장 관심있는 나라는 브라질로서 연간 소비량이 900,000톤이다. 브라질은 수입쿼터가 30,000톤에서 55,000톤으로 증가되어 개방될 것이다. 다른 잠재적인 수출 시장은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와 멕시코 등이다.

15. 결론

유럽돈육부문과 국제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 유럽돈육부문은 전통적으로 더욱 효율적이고, 따라서 다른 주요한 유럽농업부문보다 지지와 보호에 덜 의존적이다.

-사료가격의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GATT가 수입규제의 수준을 감소시켜, EU 이외의 나라들은 유럽돈육시장과 경쟁이 안될 것이다.

-유럽의 돈육소비자는 곡물가격의 하락으로 돈육의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므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단기적으로 이런 것은 EU의 새로운 세 회원국들에서 특히 나타날 것이다.

-유럽수요의 증가는 주로 그에 상응하는 만큼 생산의 증가가 있을 것이다. 시장의 환경은 어쨌든, 더욱 경쟁적으로 될 것이다.

-수출시장에 있어서 유럽경영자들은 EU 수출상환금으로 이익이 된 수출량의 감소와 사료가격이 비싸짐에 따라서 경쟁적인 불이익으로 고생할 것이다.

-유럽의 수출국은 세계시장에서 그들의 경쟁국보다 더 효율적이고 품질위주의 사양으로 이런 헛티캡을 보상해야 한다.

-더우기 새로운 시장으로의 진출은 EU수출국들이 GATT제한에 의해 생긴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그러면 EU는 원래의 수출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며, 전체 생산량 중에 수출량의 배정에 있어서 상대적인 감소가 예상된다.

-만약 EU의 사료가격이 일반 농업정책의 두번째 개혁에 의해 세계시장수준으로 감소한다면, 경쟁적인 불이익이 사라질 것이고, 유럽은 제 3세계 시장에서 그 위치가 더 증진될 것이다.

-어쨌든 돈육시장에서 경쟁은 구조적인 발전으로 인해 EU 내부적으로 뿐만아니라 세계시장에서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시장 능력과 효율의 개선에 대한 압력은 유럽에서는 보다 지역적으로 특화된 것이다.

-미래의 경쟁적인 지위에 대해 예상해보면, 한가지 단점이 남아 있다. 그것은 동물 복지와 환경입법화 뿐만아니라, 유럽 및 그 이외의 지역에서 구조적인 농장정책에 있어서의 차이점이다. 입법화에 의해 이런 차이는 더 넓어져 미래의 경쟁적 상황이 왜곡될 수도 있다.

전체적인 결론으로 유럽돈육부문은 변화하는 국제적인 사업환경에서 그 자체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동시에 이 부분을 올바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 따라서 극적인 변화는 유럽돈육시장에서 빠른 시일 내에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되지는 않는다. 시장은 전통적인 주기운동을 계속할 것이나, 동시에 생산은 장기적으로 증가할 것이므로 경쟁적인 배경은 증가할 것이다.

16. 맺음말

이 글을 마치면서, 저는 시장의 자유화와 세계적인 개방화로써의 발전이 새로운 미래에 세계의 협정의 수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새로운 지구환경에서 우리는 서로 경쟁자로서가 아니고 돈육산업의 모든 분야에서 동료로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협력으로부터의 이점에 친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이 회의에 대해 한국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국경을 뛰어넘는 이해와 협력이 미래에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회의를 주최하신 분께서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지 캠페인

축산물의 유해물질 잔류를 방지합시다.